

시민 공감 '광주 도시브랜딩' 박차

'브랜드학교' 이어 '2024 디자인캠프 in 광주' 성료 시각디자인 등 기획 통해 도시의 일상 재해석 주목

광주시가 '광주 브랜드학교'에 이어 '2024 디자인캠프 in 광주'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도시브랜딩' 목표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광주시는 1일 "전국의 도시브랜딩 디자인 기획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2-25일 광주대학교에서 '2024 디자인캠프 in 광주'를 진행,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24 디자인캠프 in 광주'는 광주-대학-민간 협력형 도시브랜딩 디자인

기획 인재 양성 사업으로 지난 4월 진행된 '광주 브랜드학교'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디자인 및 도시브랜딩 기획 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고의 시각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멘토와 전국의 도시브랜딩 디자인 기획자·전공자 90명의 멘티들이 9개 팀을 구성해 교류하며 시각 디자인·도시브랜딩 기획을 통해 광주 도시의 일상을 탐색했다.

이번 행사는 '노잼'이라는 광주 이미지를 휴식과 유희의 대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노잼'을 긍정적으로 분석해 광주 도시의 일상을 재해석하기 위해 '노잼 광주'를 주제로 선정했다.

행사에 참여한 9개 팀의 멘토와 멘티는 ▲광주 소상공인 탐구를 통한 브랜드 인사이트 발견 및 나만의 브랜딩 포트폴리오 제작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디자인 영상물 제작 ▲5·18을 주제로 한 광주 레터링 제작 ▲광주 파사드 파노라마 포토그래피 작업 등 '노잼'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했다.

특히 5·18을 대상으로 새로운 글자체를 제작한 '이재영팀'은 5·18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을 넘어 강인함과 희망

에 대한 광주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주목받았다.

또한 나만의 오디오 비주얼 라이저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PEAK팀'은 "노잼을 유쾌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이라며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심장 박동 소리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등 일상을 새롭게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광석 대변인은 "진정한 도시브랜딩은 시민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시민들이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형성한 시각 문화가 곧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딩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도시브랜딩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청림 문화 확산" '청바지데이' 운영

광주시, 오늘부터 5일간 캠페인 등 행사 다채

광주시는 1일 "2일부터 6일까지 자체 청림 주간으로 정해 '청바지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바지'는 '청림은 바로 지금! 청림하고 바로고 지혜롭게!'를 줄인 말이다. 광주시는 특정 계층이나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청바지를 통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바지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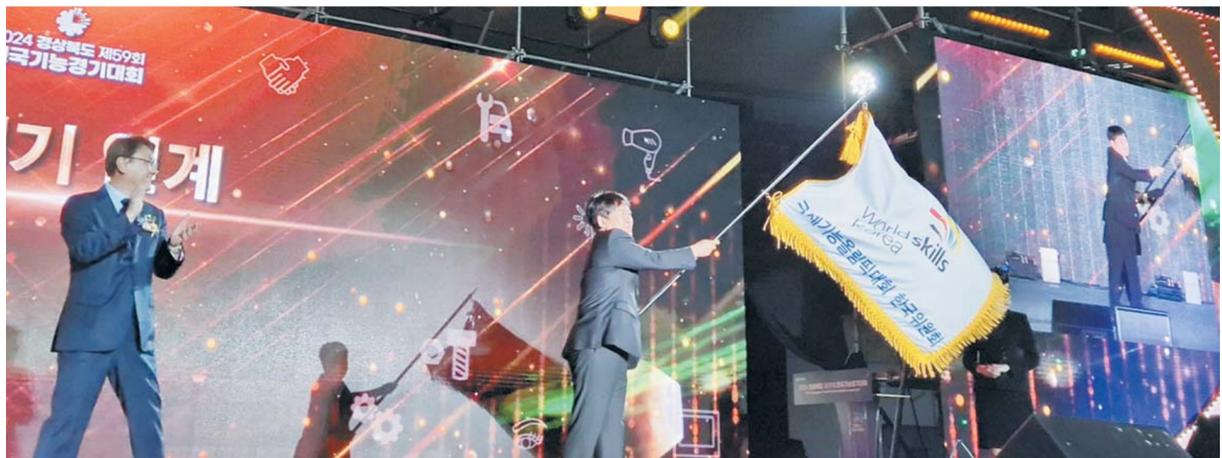
올해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바지데이' 운영 첫날인 2일 청바지 입고 출근하기 캠페인을 비롯해 ▲청바지 착용 인증샷 콘테스트 ▲공직

자 부패 행위 모의신고 훈련 ▲음료와 청림 주간으로 정해 '청바지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전! 청림골든벨 ▲광주시 청림 홍보왕 선발 ▲조직 문화 개선 특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조직 내 청림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광주시의 청림 주간 행사는 단순히 청바지를 입는 회식 행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청림 의식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면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이 직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이 모여 공정과 청렴이 내재된 행복한 조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내년 9월 광주서 만나요"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기 인수 기념식.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이상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기를 전달받은 후 흔들고 있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내년 9월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시 제공>

한부모가족 6천세대 수산물 꾸러미 제공

자숙전복·반건조우럭 등 7종...도, 먹거리 복지 실천

전남도는 1일 "추석을 맞아 한부모가족 6천세대에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자숙전복, 반건조우럭, 마른 멸치, 미역, 다시마 등 7종으로 5만 원 상당이다. 양질의 영양식이면서도 조리하기 간편한 수산물로 구성됐다.

지역 수협을 통해 수산가공품을 납품받아 수협중앙회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이틀간 순차적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배송했다.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3월 해수부 수산물 상생 할인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수산물 판촉 및 판로 개척 활동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자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먹거리 복지를 실천했다.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대상 가정에는 나눔의 추석 명절이 되고 어가에는 소비 촉진을 통한 활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음식으로 전남의 신선 수산물이 애용되도록 다양한 판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먹깨비·땡겨요'서 할인쿠폰 배달 받으세요

전남도,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2...9월 1인 2회 5천원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사용하는 누구나 매월 1인 2회 5천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2'를 시작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착한 배달앱이다. 가입비·광고비 또한 없

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소비자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내려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신규 가맹 시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짜 배달 가맹

점에 월 20만 원 상당의 배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5천원 할인 쿠폰 등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생배달앱 땡겨요는 신규 가맹 시 20만 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신규 가입 시 첫 주문 할인과 재주문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3천원 할인 쿠폰(1인 1회), 오는 13-18일 추석 기간 배달비 3

천원 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공공·상생배달앱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1을 추진했다. 소비자에게 매월 1인 4회 5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한 결과,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았던 6월보다 배달앱 매출액이 먹깨비 125%, 땡겨요 163% 증가했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폭염과 장마로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캠페인 시즌2가 외식업계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경남·부산 공동개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료

'제5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1일 "지난달 30일 여수 웅천해변문화공원에서 '제5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1일까지 이어졌다.

전남·경남·부산을 하나로 잇는 올해 국제요트대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7개국에서 총 2백여명의 선수·관계자가 참가

했다.

이번 대회에선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출발해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수심 100m의 요트가 폭넓게 남해바다를 시원스레 누비며 경주를 펼쳤다.

남해안권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2020년 이래 올해 5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전남도·경남도·부산시 공동 주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여수시·통영시·대안요트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뻐낸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남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남남도경찰청 Jeollanamdo Provincial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전남남도교육청 Jeollanamdo Provincial Education Office, 도로교통공단 Road Traffic Safety Corporation, 인안보험협회 Inan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KTCL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Gwangju Metropolitan City Traffic Culture Research Institute, 전남남도교통문화연구소 Jeollanamdo Provincial Traffic Culture Research Institute,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Gwangju Metropolitan City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